



### 도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동전 모으기' 공동모금회에 동전 모금함 316개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태연)는 15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를 방문해 '사랑의 숨은 동전 모으기 캠페인'으로 마련한 모금함 316개를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의 제안으로 진행 중인 '사랑의 숨은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제주도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단체 17곳에서 직접 모금한 것으로, 도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태연 센터장은 "그동안 도민들의 마음 속에 숨어있던 나눔의 씨앗들이 모여 큰 사랑이 됐다"며 "앞으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나눔활동을 통해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 숨은 동전 모으기'는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배포 및 수거해 그동안 집이나 차에 방치됐던 동전을 모금하는 캠페인이다.

### (주)일로와 지역사회에 쌀소라 기부



(주)일로와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어촌계 해녀들이 직접 수확한 쌀소라 500kg을 제주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일반 소비자에게 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로와에 따르면 제주에서 채취된 소라는 70~80%가량이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이 크게 줄었다. 국내 소비도 부진해 해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일로와는 어촌계의 쌀소라를 구매한 뒤 필요한 곳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기부 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은 식당과 어촌계 인근 식당을 우선으로 해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쌀소라를 접한 소비자들에게는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노형로타리클럽 이주여성가족센터 후원



제주노형로타리클럽(회장 한석)은 최근 구좌읍 소재 이주여성가족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다문화가정 70가구에 3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 세트를 후원했다.

제주노형로타리클럽은 '로타리! 함께하는 봉사'를 슬로건으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 삼육식품제주총판 취약계층에 후원금

삼육식품제주총판(대표 윤봉실·김추자)은 지난 12일 제주적십자사 회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삼육식품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하고자 성금을 전달했으며, 적십자사는 경제적 어려움과 거동 불편으로 식사가 어려운 가정을 위한 사랑의 어명출레 밀반찬 나눔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윤봉실 대표는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와 후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윤봉실, 김추자 대표는 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에 매년 이웃사랑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경로당, 보육원 봉사활동, 희망풍차 결연가구 물품지원 등 나눔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정희직물 지체장애인협회에 후원금

(주)정희직물(대표 오정희)은 지난 12일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지회장 오형범)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오정희 대표는 "올해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에 후원금을 전달 하게 돼 기쁘고 제주시지회의 발전을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정희 대표는 매년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 제주목화로타리클럽 장학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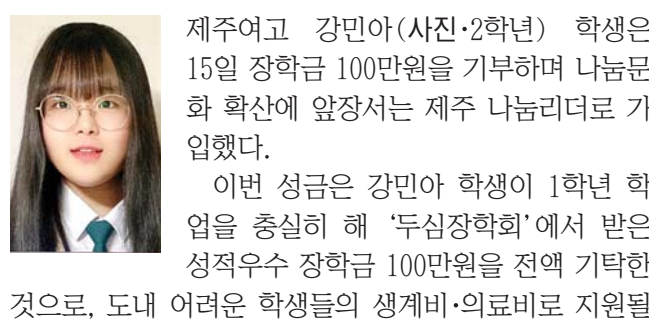
제주목화로타리클럽(회장 정현미)은 지난 13일 흥익아동복지센터(시설장 허철훈)를 방문해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흥익아동복지센터는 이날 전달된 장학금을 고등학교 1명, 대학생 1명을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 영평초등학교 김완석씨 학교발전기금



영평초등학교총동문회 김완석 상임부회장은 지난 12일 영평초등학교(교장 양정숙)에 학교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완석 상임부회장은 학교발전기금이 전교생 1인 1권 은책입기에 사용되길 희망했고, 이에 학교는 전교생에게 1인 1권을 선물할 예정이다.

### 제주여고 강민아 학생 장학금 전액 기부



제주여고 강민아(사진·2학년) 학생은 15일 장학금 100만원을 기부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제주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이번 성금은 강민아 학생이 1학년 학업을 충실히 해 '두심장학회'에서 받은 성적우수 장학금 100만원을 전액 기탁한 것으로, 도내 어려운 학생들의 생계비·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강민아 학생은 "가족 모두 나눔 실천을 지지해준 덕에 기부를 결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변을 살피며 나눔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민아 학생은 지난 2017년부터 매월 용돈의 일부를 기탁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 동정

#### 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회의

◇현길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 제위원장 16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리는 2021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할 예정.

#### 제주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논의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 위원장 16일 제주연구원회에서 열리는 연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논의를 하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

####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격려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6일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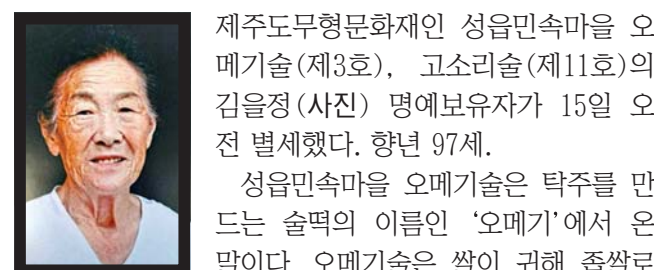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 참석

◇고태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6일 제주도청에서 개최되는 '2021년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

#### 건강관리지원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6일 제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 오메기술·고소리술 김을정 보유자 별세



제주도무형문화재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제3호), 고소리술(제11호)의 김을정(사진) 명예보유자가 15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7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은 탁주를 만드는 술떡의 이름인 '오메기'에서 온 말이다. 오메기술은 쌀이 귀해 좁쌀로 탁주, 청주 등을 빚는 제주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1990년 제주도무형문화제로 지정됐다. 1995년 제주도무형문화제로 지정된 고소리술은 오메기술을 발효시킨 술떡으로 증류한 술을 말한다. 고소리(소줏고리)로 증류해서 소주를 고아낸다는 데서 명칭이 유래했다.

김을정 명예보유자는 두 종목의 초대 보유자로 활동하며 제주 전통 토속주 전승에 힘써오다 2017년 1월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발인은 이달 18일 오전 7시 부민장례식장. 유족으로 작곡가이자 음악평론가인 강민철 전 제주관광대 교수, 강문규 전 한라일보 논설실장, 강경순 오메기술 보유자 등 5남 2녀가 있다. 연락처 010-2937-3276.

#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백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광양사거리